

“지역경제 활성화” 찬성 캠페인 vs 반대 포럼 “지역상권 급속히 붕괴”



광양 LFA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입점 찬성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광양청년회의소(왼쪽)와 입점 반대 포럼을 개최한 소상공인들.



광양 LFA아웃렛 입점 찬반 갈등 확산

광양 LFA아웃렛 입점을 둘러싸고 전남 동부권에서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양청년회의소는 지난 20일과 26일 광양시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와 광양읍 안동로터리에서 “LFA아웃렛 입점은 광양시 발전의 좋은 기회”라며 입점을 찬성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반면 순천 소상공인들의 입점 반대를 시작으로 여수, 광양 소상공인들까지 가세하며 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광양 LFA아웃렛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토지 소유자 등은 지난 23일 광양시장과 전남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상대로 광주 지방법원에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26일에는 광양지역 상인회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 아웃렛 입점대상 토지 강제 수용 재결=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현복 광양시장이 LFA아웃렛 측에 행정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아웃렛 건립이 불가능한 부지에 광양시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며 “아웃렛이 공익적 사업이 아님에도 행정재산이 공유재산 관리에 어긋나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4일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를 열고 LFA아웃렛 입점 대상지역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웃렛 입점에 반발하는 상인과 토지소유주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FA아웃렛 전체 면적 가운데 75%의 보상이 마무리된 상태이다.

광양 LFA네트웍스는 1000억원을 투입



내년 개장 목표 토목공사 준비...비대위는 광양시장 고발 순천 이어 광양·여수 소상공인들도 가세 반대운동 지속

해 광양읍 덕례지구 부지 3만여평에 연건평 3만3000㎡ 규모로 영화관을 비롯한 250개의 매장을 갖춘 아웃렛을 내년초에 개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광양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은 뒤 사업 대상지에 가설 울타리를 치고 토목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달 초 부산 기장군에 입점한 신세계와 롯데 아웃렛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문제, 소상공인 보호문제 등에 대해 파악했다.

기장군 신세계 아웃렛의 경우 188개 입점 브랜드 중 20%가 지역업체가 본사와 직접계약해 운영하고, 입점을 희망한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아웃렛 역시 기장군이 지역상인 보호를 위해 쿠폰제(판매품목 제한)를 제안해 운영하고,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상시 게시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고 있다. 또 아웃렛 내 지역 농산물 판매코너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내년에 광양 LFA아웃렛이 개장하면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등

지역에서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고,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다양한 아이템 개발 등 타개책을 찾고 있다.

LFA 쇼핑객을 광양에 머물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광 서천변 숲길구이 식당은 물론 단체 먹거리 개발, 동서 통합시대 조기개발, 아순신 대교 전망대 설치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LFA 측에 명분있는 지역 환원사업으로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 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등의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선결과제=하지만 선결과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점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하는 나이다.

최근 아웃렛 입점반대 포럼에서 “대형 아웃렛 개장 3년 후 주변 10km 이내 지역업종의 매출이 50% 이하로 급감하고 신발과 음식점, 서비스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기 경기침체로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버거운 현실속에 아웃렛 입점으로 영업을 포기하는 상가가 속출하며 지역 상권이 급속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LFA 아웃렛 유치와 관련해 광양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공·사석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소신없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의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형 쇼핑센터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나왔다”며 시 입장에 동의한 바 있다.

특히 시의회는 광양·여수항에 국제 크루즈선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쇼핑공간이 없어 부산이나 광주로 발길을 돌리는 현실에 공감하고 지난해 12월 아웃렛 광양입점 반대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최근 제238회 임시회 시장질문에서 “지역 의류업체 피해 대책과 LFA아웃렛 대책위 구성, 행정종합대책 TF팀 구성, 시민설명회 개최, 상권영향분석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광양시를 질타했다.

더욱이 일부 시의원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도 반대 여론에 떠밀려 당초 찬성 입장에서 후퇴하며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해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광양읍 주민 A씨는 “시 발전과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유치된 아웃렛을 지도층들의 안일한 대응과 시기, 장소에 따라 달리하는 무소신이 문제”라며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80%대로 찬성이 우세한 것과 말없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시 이경희 투자유치과장은 “지금까지 타지역 여론과 자료수집을 위해 대형 아웃렛 매장을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이 직접 방문해 여론수렴과 자료를 수집해 왔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LFA측과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대 푸저우시 대표단 광양 방문 농업·관광 협력 모색

중국 푸저우(福州)시 대표단이 지난 18~20일 광양을 방문해 농업(매실) 및 관광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대표단은 왕서우진 푸저우시 용타이현(永泰縣) 부현장을 단장으로 농업분야 관계자와 관광분야 관계자, 국제교류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중국 현지 매실 가공제품 4종(섬채매, 레몬청매, 무핵매, 자소매)을 가져와 청매실농원 등 매실 가공업체와 상호 시식했다. 또 매화축제를 방문해 현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실 가공제품 전시와 시식회를 가졌다.

방문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광양시 문화관광과 관계자와 관광분야 교류 간담회도 가졌다. 광양시 김경관 철강형만과장은 “이번

대표단 방문은 광양시의 농업 및 관광분야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우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양 지역 매실산업 발전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함께 농업 및 관광분야 교류를 증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의 중국 푸저우시는 지난 2009년 9월 국제 우호도시 교류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양시 공무원 1명이 푸저우시에 20일간 파견연수를 다녀온 바 있다.

푸저우시 남서부에 위치한 용타이현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청매실 재배단지 중 하나이다. 재배면적이 광양의 3배인 3310ha 규모로 지난 2013년 1만7000여의 매실을 수확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리틀야구단 창단 1년만에 전국대회 8강

광양시 리틀야구단(감독 정영진)이 창단 1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8강에 진입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광양시 리틀야구단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1회 하드스프츠배 전국 리틀야구대회’에서 충북 청원구와 수원 권선구를



참가해 동계 전지훈련 등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광양과 전남·북에는 현재 14개의 리틀야구단이 있다. 전남에는 광양, 목포, 나주 등 3개 시에 리틀야구단이 창단돼 활동 중이다.

광양시 리틀야구단은 지난 2014년 4월에 창단, 취미반과 선수반 등 40명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으며, 5월 도미노피자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출전을 준비 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신생팀이 첫 출전한 전국규모 대회에서 8강에 진출한 것은 한국 리틀야구 30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어린 선수들이 전국에서 광양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시도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야구장 건립 등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광양경찰서(서장 정재윤)와 광양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4일 광양중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신학기에 집중되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일보 63년 독자와 함께 걸은 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Includes a map of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with phone numbers for advertising, subscriptions, and forecasts.